

# '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운영

### 전주시, 140명 위촉... 11월까지 운행 실태·친절도·차량관리·만족도 등 평가

전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직접 시내버스에 탑승해 이용 만족도를 평가하는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시는 시내버스 운행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1 하반기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140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매월 7회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으로 꾸러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운행 실태와 친절도, 차량관리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접수된 부정차와 급출발, 난폭운전과 불친절, 시설물 훼손 등 시정 요구사항들을 해당 버스에 전달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친절하고 안전한 모범 운전원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시연을 추천·제보 받아 추후 시내버스 친절·안전기사 선정에 반영키로 했다.

시민모니터단에게는 평가서 1건당 1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월 7회 이상 활동한 경우 매월 1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활동 우수 참여자에게는 연말에 표창도 수여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했다.

운영 결과 운전원 이름표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만큼 시민들이 운전원 이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이름표칸 제작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활동은 시민이 직접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라며 "모니터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연중 운영한다.

## 전주농기센터, 31일까지 벼짚환원사업 참여자 접수

### 11월 중 가을갈이 이행 여부 점검한 뒤 12월 보조금 지급

전주시가 논 의 지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돕기 위해 벼짚을 활용한 가을갈이를 지원한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2021년도 벼짚환원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

'벼짚환원사업'은 화학 비료 사용 등으로 지력이 떨어진 논지에 벼짚을 잘게 잘라 가을갈이를 함으로써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올해 9483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474ha 면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올해 전복 도내 논지에 벼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시는 11월 중 가을갈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이상이 없는 농가에 한해 0.1ha부터 3ha 범위 내에서 1ha당 20만 원의 보조금을 올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통장사본과 함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벼짚 환원사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들께서는 벼짚환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초등학생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 다채

### 전주시립 평화도서관, 18일까지 어린이 수어교실·여름독서교실·클레이 아트 등 진행

전주시립 평화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 수어교실 ▲여름독서교실 ▲바다와 물고기 클레이 아트 ▲신나는 어린이 아뜰리에 '와이어 비즈 썬 캐처' ▲창의 Go! 보드 Go! - 라온 ▲창의 Go! 보드 Go! - 마헤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어린이 수어교실은 오는 13일까지 농통역사로부터 수어를 배우며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여름독서교실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나와 너를 넘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지구 지킴이'를 주제로 열린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 관련 도서를 읽으며 다양한 독후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3일 모두 참석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교부되며, 우수 참여자 2명에는 전주시장상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이 수여된다.

오는 10일에는 바다 생물의 종류를 알아보고 클레이로 바다를 표현해보는 '클레이 아트'가 운영되고,

오는 12일에는 와이어와 다양한 비즈를 활용해 썬캐처(인테리어 소품)를 만드는 시간도 이어진다.

또 17일과 18일에 진행되는 '창의 Go! 보드 Go!' 프로그램에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 타일을 이용한 보드게임을 통해 집중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활동과 레이싱 게임을 통해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화도서관(063-281-642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인력 통해 방문·전화상담

전주시치매안심센터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연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치매전담인력(간호사)을 통해 월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환자에게는 ▲일상 생활관리 ▲기초 건강관리 ▲민간·공공서비스 연계 ▲인지재활프로그램 제공 ▲치매환자 가족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안심센터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치매환자들을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고립감 해소 및 치매증상 완화 방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센터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상담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푸드마켓' 홈페이지 17일 재오픈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시지역 농산물 온라인 쇼핑물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시지역 농산물 온라인 쇼핑물로 최근 리뉴얼 작업을 한 전주푸드마켓 홈페이지(jfoodmarket.co.kr)를 오는 17일 재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 작업은 농산물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를 높이고 농산물 판매 확대에 기여하는 온라인 쇼핑물로 거듭나고자 진행됐다.

센터는 홈페이지 재오픈을 기념해 ▲한여름 원기회복을 위한 고구려미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과자꾸러미 ▲제철 식재료를 담은 과일·채소꾸러미 등을 마련, 소비자들

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센터는 매일 다양한 이벤트 꾸러미를 출시할 예정으로, 꾸러미를 구매할 경우에는 증정품 지급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한 센터는 전주푸드 근거리 배송사업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2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무료 배송을 지원하고 오후 3시까지 주문한 상품은 당일배송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